

보도일시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2024. 1. 16.(화) 14:00

저수온 위기경보 경계→주의 단계로 변경

- 다음주 중반에는 다시 수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월 16일(화) 14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변경하였다.

*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: 관심→주의→경계→심각

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저수온 특보 해역인 서해 연안(내만 포함)의 수온이 주의보 발표 기준인 4℃보다 높게 유지되고 1월 20일경까지 현재 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, 1월 16일(화) 14시부로 서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예비주의보로 대체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.

*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(2024. 1. 16. 14:00 기준)

- 저수온 예비주의보: 서·남해 연안(인천 백령도 북측~경남 거제도 동측) 및 내만

* (예비주의보) 주의보 발표 예측 7일 전 → (주의보) 수온 4℃ 도달 또는 도달 예측 → (경보) 수온 4℃ 3일 이상 지속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현재 바닷물 수온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, 다음 주 중반에는 한파로 인해 수온이 다시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경되는 저수온 특보 상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”라며, “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니,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수온정보*를 꼼꼼히 챙겨 겨울철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*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 '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(www.nifs.go.kr/risa) 및 '수온정보서비스' 애플리케이션

한편,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대응을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 유도 및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지도·점검하고 있다. 또한,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	우승하 (044-200-5392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	민병화 (051-720-2750)
			연구사	황재동 (051-720-2751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	임현정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관	남보혜 (051-720-2420)
			연구사	최 진 (051-720-2431)



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도 (2024년 1월 16일)

